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연 수 개 요

- 연수기간 : 2014. 10. 11 ~ 10. 15(4박5일)
- 방 문 국 : 일본(홋카이도 일원)
- 연 수 단 : 15명(시의원10명, 공무원 5명)



구 미 시 의 회

2014년도 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개요

1. 방 문 국 : 일본(홋카이도 일원)

2. 연수목적

-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함으로써, 우리지역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 관광 러시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선진국인 일본(홋카이도 일원)의 관광산업 분야 등을 현장 견학 및 체험을 통하여, 우수한 정책을 벤치마킹, 구미시에 접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연수기간 : 2014. 10. 11[토] ~ 10. 15[수], 4박 5일

4. 보고서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철 의원 등 10명

5. 연수단 명단

연번	소 속 위 원 회	직책	성명	비고
1	구미시의회	산업건설 위원장	윤영철	단장
2	"	산업건설 부위원장	한성희	1조
3	"	의원	김상조	
4	"	의원	김인배	
5	"	의원	김재상	
6	"	의원	김정곤	2조
7	"	의회운영 위원장	정근수	
8	"	의원	박교상	
9	"	의원	임춘구	
10	"	의원	허복	

목 차

I. 연수개요

1. 연수 목적	3
2. 연수세부내용	3
3. 연수일정	3

II. 연수국 현황

1. 일본	4
-------------	---

III. 주요 방문지 방문 내용

8

IV. 방문후기 및 정책제언

1. 방문후기	23
2.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제언	26

I

연수개요

1. 연수목적

-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함으로써 우리지역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 관광 러시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선진국인 일본(홋카이도 일원)의 관광산업 분야 등을 현장 견학 및 체험을 통하여, 우수한 정책을 벤치마킹, 구미시에 접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연수세부내용

- 기 간 : 2014. 10. 11(토) ~ 10. 15(수), 4박 5일
- 참여인원 : 15명(의원 10명 / 직원 5명)

3. 연수일정

일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일 정
10.11 (토) 제1일	구미 인천 삿포로	버스 KE 765 전용차량	03:00 10:10 14:30 16:30 19:00	구미 출발 인천공항 출발 삿포로 시청 방문 삿포로 舊 도청사 견학 석식/토론회 개최(견학시설에 대한 토론)
10.12 (일) 제2일	삿포로	전용차량	전일	오타루 운하 견학 키타이치 가라스 마을 방문 오타루 시청 방문 석식/토론회 개최(견학시설에 대한 토론)
10.13 (월) 제3일	노보리벳츠 하코다테	전용차량	전일	도야호수, 오오누마 국정공원 견학 곤부관 박물관 견학 하코다테 시청 방문 구영국영사관 견학 모토마치공원 시찰 석식/토론회 개최(견학시설에 대한 토론)
10.14 (화) 제4일	하코다테 히로사키	전용차량	전일	세이칸 해저터널 체험 초가루번 네부타무라 견학 석식/토론회 개최(견학시설에 대한 토론)
10.15 (수) 제5일	아오모리	버스	11:30 16:00 19:30	아오모리공항 이동 인천국제공항 도착 구미 도착

II

연수국 현황

1. 일 본

일본은 일본열도와 홋카이도(北海島)·혼슈(本州)·시코쿠(四國)·규슈(九州)의 네 섬과 이즈제도(伊豆諸島)와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류큐(琉球)열도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어로는 ‘니혼’ 또는 ‘닛폰’이라 하고, 영어로는 ‘Japan’으로 표기한다. 수도는 동경(東京)이다. 면적 37만 7,915km², 인구 1억 2,725만명(2013년) 기준이다.

대부분이 아시아몽고인종에 속하고, 선주민족(先住民族)으로 아이누설·코로포크설이 있으나, 최근에는 일본석기시대인이 현대 일본인의 조상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언어는 일본어가 통용되며, 동경어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가 매스컴·교과서·의회·법정 등에서 표준어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독특한 방언이 있어 지위·직업·성별에 따라 언어적 차이가 심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알타이어계통에 속한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으로 막부정치가 끝나고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치제도를 확립, 근대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1889년 제국헌법을 공포하여, 입헌군주제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1890년 7월 제국의회가 성립되어 아시아에서 최초로 의회제도를 확립하였다.

일본의 사회구조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들이 존중되고 있으나 아직도 인정과 의리의 중시, 엄격한 상하관계, 가족주의적인 기업정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남아 있다.

일본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하며 서로 다른 문화가 마찰 없이 병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일본에 보편주의적인 종교와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보편적 가치가 결여된 현실주의가 일본인들의 생활양식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학교체제는 1947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6·3·3·4제가 채택되어 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취학률은 99% 이상이다.

고교진학률도 70% 이상에 달하며 일반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편이다.

【 현 황 】

현 황	내 용	비 고
위 치	동북아시아, 한반도의 동쪽	
경 위 도	동경 138°, 북위 36°	
면적(km ²)	377,915(전체 62위)	
수 도	도쿄	
기 후	아한대다우기후, 온대다우기후	
종족구성	일본인(98.5%), 한국인(0.5%), 중국인(0.4%), 기타(0.6%)	
공 용 어	일본어	
종 교	신도 및 불교(90.2%), 기타(9.8%)	
건 국 일	660 BC.	
정 치	입헌군주제	
의회형태	양원제	
통 화	엔(¥)	
인구(명)	127,960,000	Daum 위키백과

【 경 제 】

- 일본은 수정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통화 단위는 엔 (円, ¥, Yen, JPY)이다. 국내총생산의 규모비로는 세계 제3위의 경제 대국으로, 일본의 경제 동향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1990년대 IT산업을 미국이 주도하면서 그 영향력이 감소되고, 이는 곧 일본 금융계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토지의 불량 채권화를 가속화하여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고 말았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국내 총생산으로서는 세계 제3위, 1인당 총생산은 OECD 회원국 중 18위에 해당하며, 세계의 국내총생산 총액 점유 비중에서 9.1%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교 통 】

- 일본 교통의 특색은 육상·해상·항공을 막론하고 도쿄·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여객 및 화물의 수송이 특히 활발하며, 이어 세토 내해·북규슈 지방에서 발달하고 있으나, 동해 쪽이라든가 홋카이도·도호쿠의 두 지방, 시코쿠와 규슈 남부의 교통은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하천 교통이 거의 없는 것이 결점이며, 태풍이나 대설(大雪) 혹은 지진에 의한 교통 장애도 적지 않으나 전체적인 교통망의 밀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여객 수송 수단으로 수송량이 가장 많은 것은 자동차이며, 그 다음이 철도이다. 국제적인 수송에서는 여객에서는 항공기, 화물에서는 선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사 회 】

- 일본의 인구는 2006년 기준 1억 2800만명으로 인구의 70% 정도가 간토 남부에서 규슈 북부에 걸친 태평양 연안에 거주한다. 일본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수 민족으로는 류큐인, 아이누족, 월타족, 니브히족 등이 있는데, 계속된 차별을 받아온 류큐인은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1970년대 일본 편입 이후 재독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누족은 적극적인 문화 회복 활동을 통해 일본 국회에서 선주민 자격을 인정받았다.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2009년 기준 남성이 79.29세이며, 여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86.05세를 기록하였다. 특히 여성의 평균 수명은 1985년 이후 계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 기 후 】

- 일본 열도는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하며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산 투성이의 섬나라이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 비해서는 기후 변화가 심하다. 지리적인 남북의 차이, 바깥 일본(表日本)과 안 일본(裏日本) 차이뿐 아니라 여름 겨울의 대조 등 연간 기후의 차이도 현저하다.

일본은 세계에서다 다우지역에 해당한다.

일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계절은 봄과 가을로,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일본 열도의 특성 상 봄과 가을이 오는 시기가 다른데 특히 봄이 오는 시기를 알려주는 지표인 벚꽃은 오키나와에서는 보통 1월 말에 피고, 홋카이도에서는 5월 말에 개화하기 때문에 "벚꽃 전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가을 시기의 지표인 단풍의 경우는 홋카이도 방면에서 제일 먼저 생겨 오키나와 방면으로 갈수록 점점 늦게 생긴다.

Ⅲ 주요 방문지 방문 내용

■ 삿포로 시청 방문

삿포로의 기후는

1월 평균기온 영하 4.1℃, 8월 평균기온 21.7℃, 연평균기온 8.2℃이며, 연 강수량은 1,141mm이다. 겨울에는 평지에 1~2m, 산악지대에는 3m 이상의 적설량을 보이며, 여름에 장마가 없고 태풍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음.

관광명소로는 삿포로시의 역사를 말해 주는 현존하는 일본의 시계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삿포로 시계탑(Seattle Center) 과

1890년 제당회사 공장으로 건설되었으나, 일본에서 유일한 맥주 박물관으로 맥주에 관한 100년 역사를 소개하고, 현재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삿포로 맥주 박물관(Seattle Center)이 있다



삿포로 시청 입구에서



삿포로 시청 광장에서

■ 삿포로 舊 도청사 견학

일본 정부가 홋카이도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은 청사로 약 250만 개의 붉은 벽돌(긴 면과 짧은 면을 교대로 쌓아 올린 방식은 프랑스 방식으로 일본 내에서는 보기 드문 방식)로 건축되었다. 건립 이후 80여 년간 사용되다가 1969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현재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는 홋카이도청 舊 본청사는 “아카렌가(붉은 벽돌)”라는 애칭으로 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홋카이도 개척시대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방문한때에는 구미시의 “새마을 알뜰벼룩장터”처럼 이곳의 광장에서도 주말벼룩시장과 공연으로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고 있었다.



홋카이도청 舊 도청사 앞에서



홋카이도청 舊 도청사 전경



舊 도청사 광장 벼룩시장



舊 도청사 내부 집무실

■ 오도리공원(大通公園) 견학

삿포로시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우거진 숲, 화려한 꽃들이 만발한 도심 속 오아시스인 오도리공원은, 도시 중심부에서 길이 1.5km 폭 65-105m 동서로 펼쳐져 있으며, 시민들의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공원의 동쪽 끝에는 90m 높이의 전망대가 있는 후지 TV타워가 있고, 서쪽 끝에는 삿포로 시 자료관이 있다. 해마다 2월 5일 ~ 11일에는 축제가 개최되는데 아마츄어 작가들이 수백 개의 눈과 얼음조각으로 공원을 디즈니랜드처럼 꾸며 놓는다.

6월 중순은 요사코소우란 축제, 7월 중순에서 8월에 걸쳐서는 여름의 축제를, 12월 ~ 1월은 화이트일루미네이션, 2월은 눈축제 등 일년내내 흥겨운 축제가 끊임없이 펼쳐진다.

공원 내에는 오브제와 분수 그리고 4계절 각기 아름다운 꽃들이 화단을 장식하고 있으며, 홋카이도에서 가장 넓은 공원으로 관광객들과 삿포로 시민들을 위한 휴식과 놀이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오도리공원



오도리공원지하상가

■ 오타루 운하(小樽運河) 견학

홋카이도의 거점 무역항으로 발전한 오타루는 선박들의 화물 하선 작업을 위해 1914년부터 1923년까지 운하를 건설했다. 길이는 1.3km, 폭은 40m이다. 선박들이 드나들던 운하는 1986년에 운하 주위에 산책로를 정비하면서 오타루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탈바꿈했다.

밤이면 이국적인 야경이 펼쳐지고 주위에는 창고를 개조해 만든 고급 레스토랑, 유리 공예관, 골동품 매장 등이 있다.



오타루 운하



오타루 운하에서 배를 타는 사람들



오타루 운하 주변 산책로



오타루 운하 주변 산책로

■ 키타이치 가라스 마을 견학

약 10만 종류가 넘는 유리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곳으로 오리지널 제품을 비롯한 전세계 유리 공예품이 가득한 곳이다.



키타이치 가라스 마을



키타이치 가라스 마을 설명

■ 오르골 전시장 관람

“오타루를 찾아온 천국의 음악” 오르골 전시장 안내용 작은 팸플렛의 시작 글귀이다.

천국의 음악이라 불리우는 아름다운 오르골 음악이 먼 옛날 번영했던 시절의 향수를 자아내게 하고, 매일 수천명의 관광객들이 오르골 매장을 찾아오는 곳으로 유명하다



오르골 전시장



오르골 전시장 건물

■ 오타루 시청 방문

1933년 건축된 오타루시 지정 역사적 건조물로 오타루의 실업가였던 “도히타키치”가 10만엔을 기부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신축되었다.

설계는 “나리타코우이치로”가 이끄는 시 건축과의 직원들이 맡았다.

외벽은 타일로 붙이고 정문 입구에 차가 멈추는 곳의 지붕부분과 그 주위는 이바라키현 산 화강암으로 조성된 건축물로써, 정면 상부에 6개의 조각 기둥을 배치하고 내부 중앙계단의 정면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로 수를 놓아 중후한 멋을 살렸다.



오타루 시청



오타루시청 앞 선거벽보



오타루 시청 앞 쓰레기 정리함



오타루시청 현황판의 한글설명

■ 노보리베츠 지옥계곡[地獄谷]

홋카이도 남서부에 위치하며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온천으로 유명한 노보리베츠 온천은 해발 200미터 부근에 원생림으로 둘러싸인 온천향으로 황화수소천, 식염천, 철천 등 10여 종류에 이르는 온천질이 특징. 그 온천질의 효능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온천 가운데 하나로 이름나 있다. 온천을 인상깊게 해주는 것은 '지옥계곡'. 황회색 바위에서 화산가스가 분출 되면서 주변 일대를 강렬한 유황냄새로 뒤덮고 있어 마치 지옥을 연상하게 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곳이다. 계곡은 직경 450미터의 화산 폭발 화구로 이뤄졌으며 1분당 3천리터의 온천수가 솟아오르고 있다.



노보리베츠(지옥계곡) 입구



노보리베츠(지옥계곡)



노보리베츠(지옥계곡) 가는 길



노보리베츠(지옥계곡)입구 쓰레기정리함

■ 오오누마 국정공원[國定公園]

홋카이도 남부 최고의 경승지로 고누마, 준사이누마와 함께 국정공원으로 정해져 있다. 고마가다케의 분화 활동으로 생겨난 곳으로 주위 24Km가 호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호수 안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섬들이 있고 섬과 섬 사이는 예쁜 다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오오누마 국정공원



오오누마 국정공원

■ 도야호수와 쇼와신산

"홋카이도" 남서부에 위치한 "도야 호수"는, "시코쓰·도야 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20세기 초엽에 화산활동이 거듭되면서 함몰하여 생긴 호수로 호면이 넓은데 비해서는 외륜산이 호면에 비해 약 200~500미터로 낮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게 광활한 느낌을 준다.

호반 주변에는 1943년 지진에 의한 지각변동으로 일대가 융기하여 생긴 "쇼와 신산"이 있으며, 지금도 흰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호수는 겨울에도 결빙되는 일이 없으며, 일본에서도 최북단의 부동호로 일년내내 아름답고 깨끗하기로 유명하며 호수에 떠있는 "나카노 섬"에는 "도야 호 삼림박물관"이 있으며, 관광선이 운행되고 있다. 공원내에 아이누족의 실제 거주지가 있어 생활상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도야호수



도야호수 조망 관람



쇼와신산



쇼와신산



쇼와신산 한국어 설명



아이누족 거주지

■ 하코다테 시

오시마[渡島] 반도 남쪽 끝에 있는 도시로, 쓰가루[津輕] 해협을 사이에 두고 혼슈[本州]와 마주하는 홋카이도의 관문. 1854년 미·일(美日) 화친 조약에 의하여 시모다[下田]와 함께 일본 최초의 개항장이 되어 홋카이도 제일의 도시로 발전하였다.

에도[江戸]시대 이래 홋카이도의 행정중심지였는데, 1871년 행정청의 삿포로[札幌] 이전에 따라 행정기능은 상실하였으나 혼슈와의 연락항으로써 상공업·수산도시로 조선·제망·냉장·화학비료·수산가공 등의 공장이 있고, 앞바다에서는 오징어잡이가 성행하는 등 북양어업 기지로서 발전했다.

하코다테 본선[函館本線]의 기점이며 혼슈 북단의 아오모리[青森] 간에는 세이칸[青函] 연락선이 통한다.



하코다테 시



하코다테 시 안내도

■ 고료카쿠(五稜郭)

별 모양의 성곽으로 1857년부터 7년간 축조된 일본 최초의 서양식 성곽으로 에도 말기에 서양세력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성이지만, 메이지유신때 하코다테 전쟁에서 신선조와 유신군의 마지막 격전지로 사용된 사방위 성으로, 성의 해자가 돌출된 것으로 유명하며, 메이지유신이 성립되어 일본의 근대화가 시작된 역사적 장소이다.



고료카쿠 공원 입구



별모양의 고료카쿠 타워(107m)



고료카쿠 입구 설명



엽서에 새겨진 고료카쿠의 사계

■ 곤부관[다시마 박물관]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지역상품 다시마 박물관으로 “다시마로 이렇게 까지!” 라고 느낄 정도로 다시마로 만든 다양하고 풍부한 과자, 식품 등을 판매장에서 홍보 판매하고 있었다. 다시마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으며, 밖에서는 알뜰벼룩장터도 운영되고 있어, 일본인들의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곤부관(다시마 박물관)설명



곤부관 외부 알뜰벼룩장터

■ 구 영국영사관(개항기념관) 견학

구)영국영사관은 하코다테가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한 1859년부터 1934년까지 75년간 영사관으로 사용되었다. 시가 지정한 유형문화재로서 영국 정부해공사국의 설계에 의해 지어진 현대적 이층 건물로 영사관으로서 1859년에서 1935년까지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개항의 역사를 전하는 기념관으로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관광 명소로 이용되고 있다.



구 영국영사관 입구



구 하코다테 공회당

■ 하치만자카 견학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하코다테의 서부지구에 있는 언덕길, 하치만자카는 이국적인 정서가 물씬 풍기는 납작돌이 깔린 언덕길로 바다까지 이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1879년까지 언덕 위에 하치만구가 있었던 하치만 언덕은 항구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으로, 유명하다.



하치만자카 거리



언덕위의 성당

■ 하코다테 야경 감상

이탈리아의 나폴리, 홍콩과 함께 세계 3대 야경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100만 달러의 야경”을 감상하기 위해 하코다테야마 로프웨이(125인승의 대형 곤도라)를 타기 위해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금오산에도 이런 시설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코다테의 야경



125인승의 대형 곤도라

■ 세이칸 해저터널 열차체험

터널 전체거리 53.85km, 수심 140m에 이르는 세이칸터널은 1988년 3월 13일 개통 되었으며 홋카이도와 혼슈를 연결하는 일본 유일의 해저 열차이다.



하코다테역 전경



하코다테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며



세이칸터널의 제일 깊은곳(수심 140m)터널이 지나는 위치
 특급열차의 터널 진입시간과 통과시간은 약 25분 소요

■ 츠가루번 네부타무라 자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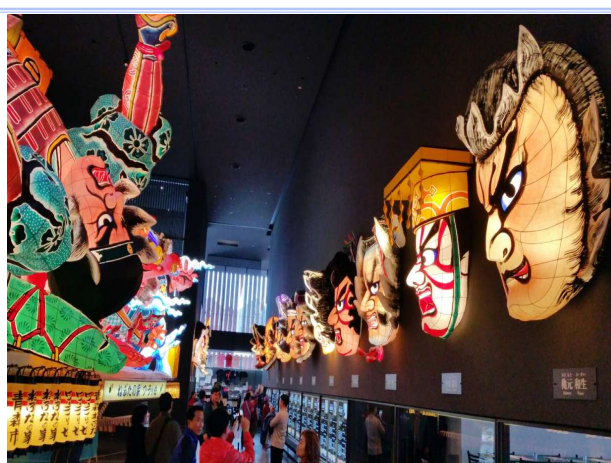
아오모리 네부타는 국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일본을 대표하는 축제(매년 8월 2일 ~ 7일 개최)로

아오모리 시민들의 공유재산인 “네부타 축제”의 매력과 지역이 품어 온 역사와 그 멋을 후세에 널리 전승해 나가고자 박물관에는 네부타 축제의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역사를 사람들과 거리의 모습을 통해 소개하고 있으며, 네부타 축제를 전승해 온 사람들의 모습과 넘치는 정열 및 생각을 다양한 영상과 패널 등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네부타 홀에는 대형 네부타를 중심으로 5대가 전시되어 있으며, 매년 교체한다고 하였다.



츠가루번 네부타무라 자료관 입구



츠가루번 네부타무라 자료관 내부



츠가루번 네부타무라 자료관 내부



츠가루번 네부타무라 자료관 내부

1. 방문후기

제7대 구미시의회가 개원 된지 4개월 남짓 접어드는 시점에서, 4박 5일 간의 일정으로 시행 된 일본 연수는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한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하고 골똥 없는 황금산업이라 불리는 관광산업 분야 등의 우수한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연수 첫날 새벽 3시 30분 구미시를 출발하여, 오후 1시경 일본 “치토세” 공항에 도착, 홋카이도의 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 삿포로로 이동하였다.

첫날 방문지인 삿포로 시청과, 舊 도청사, 오도리공원을 둘러보며 새로운 경쟁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발전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했다.

이곳의 보도블럭 설치하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주의로 넘어지더라도 부상의 위험이 적도록 깔여져 있었다. 또한 일부 주차장은 옆 차와 부딪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ㄱ자형으로 주차선을 만들어 세밀한 부분까지 시민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공식일정 둘째 날 방문지 오타루는 인구 14만의 소도시지만 고즈넉한 분위기의 아름다운 도시였다. 키타이치 가라스 마을(오르골 전시장 포함), 지옥계곡, 오타루 운하와 시청 방문 등을 통해 느낀 점은, 외부 사람들의 시각으로 우리가 가진 관광요소를 바라보고 접목시켜 잘 결합한다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공식일정 세째 날,

섬 안에 네 개의 섬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칼테라 호수와 기생 활화산인 쇼와신산, 국정공원 중의 하나인 오오누마, 다시마 박물관인 곤부관, 이국적인 정서와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하치만자카, 세계 3대 야경으로 손꼽히는 하코다테 야경까지 홋카이도를 돌아보니 도로와 공원, 개인 사유지까지도 주변 경관과 잘 조화되도록 조성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보다 옛 것을 지키며, 그 안에서 새로움을 창조하고 발전해 나가는 일본인, 2014년 현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낙후되어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80년 전, 100년 전 건축·조성된 것이라고 들으니 옛 것을 소중히 간직하는 그들과 옛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비교가 되어 무엇이 옳은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게 했다.

공식일정 넷째 날,

홋카이도와 혼슈를 연결하는 일본 유일의 해저 열차를 타고 하코다테에서 아오모리로 이동하였다.(아오모리는 우리나라 아오리 사과 원산지이며 일본 사과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어디서든 사과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을 볼 수 있었다.)

츠가루번 네부타무라 자료관에서 네부타 축제를 전수해 온 주민들의 모습과 전시된 대형 네부타를 보면서, 우리의 발갱이 들소리 전수관이 떠올랐다. 아오모리의 네부타는 국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 매년 8월 2일부터 7일까지 축제를 개최한다고 한다. 구미의 발갱이 들소리도 향토민요로써 더욱 계승 발전되어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릴 수 있기를 바래본다.

더치페이 정신이 투철한 나라 일본.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자식들에게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철저한 개인주의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이들에게 멀티를 원하는 우리나라와 사뭇 다른 교육방식에 조금 낯설기도 했다. 하지만 내 지역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은 서로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과, 어디를 가도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을 볼 수 없었던 그들의 지나치리만큼 철저한 공중도덕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후손이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옛 것을 지키며 필요한 만큼만 개발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그들,

역사성과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현대와 조화를 이뤄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일본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으며, 덩으로 엄청난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도심 속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조상들이 물려준 자연유산을 잘 보존하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었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한 몫 하는 것 같았다.

또한, 일본은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과 자발적 참여도가 매우 높아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실천하는 자세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에 동참하는 이들이 시민 전체가 아닌 봉사단체의 회원뿐이라는 점이 못내 아쉬운데,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사람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연수는 체험위주의 일정을 통해 일본 현지 모습을 알고자 많은 곳을 찾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접하는 자체가 의원들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에 큰 무리 없이 연수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이번 연수를 통해 일본의 북해도 지역은 지역 간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차이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관광 사업을 발굴 육성해야겠다는 당위성과 자연환경 보존에도 적극 동참하는 시민의식과 자발적 참여도가 매우 높은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 하겠다.

다양한 관광코스를 기업체와 접목시켜 공업도시인 구미를 알리고 한번 왔던 사람들이 행복한 추억을 찾아 다시 방문하는 구미가 되기를 바라며,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2.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제언

가. 기업체와 연계한 구미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 구미는 공업도시이므로 공업도시의 특성을 살려 기업체와 연계한 여행상품을 개발하면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 될 것이다.
경험하지 못한 것 자체가 획기적인 여행상품이므로
공업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우리 구미시에 상주하는 삼성 · LG전자 외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연계해 관광자원화하여 구미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필요
-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 문화 · 음식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관점에서 관광객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맞춰보기

나.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연장 운행

- 세계 3대야경으로 손꼽히는 하코다테 야경 관광을 위해 케이블카로 올라갈 때 구미시도 금오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운행하여 관광 명소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다. 다양한 구미 특산품 개발과 제품 포장 고급화

- 새로운 마인드로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산품 개발과 제품포장의 고급화 필요

❶ 북해도 : 축산(목축)
유제품, 마유 개발

❷ 노보리벳츠 : 다시마
다양한 다시마 관련
식품 개발

❸ 아오모리 : 사과
사과 식품 및
바디용품 개발



※ 일본의 지역 어디를 가도 그 지역 특산품들이 사고 싶도록 예쁘게 포장 진열되어 있었다.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 잡기위해 조도까지 생각하며 진열된 상품들은 구매력을 충족시켰다.

라. 특산품 판매장 설치 및 판매자의 친절한 마인드

- 관광객들의 여행코스에 맞춰 별도의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함으로써 구미 특산품을 홍보 판매



※ 호텔 근로자들은 고객에 대한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었고, 호텔에서 버스 출발 시 다시 방문해달라는 한글현수막까지 내걸며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배웅하는 모습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무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친절을 본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 식사하는 곳에서 식사와 쇼핑을 함께 할 수 있는 부스 마련
우수한 품질 + 착한가격 + 포장의 고급화 + 친절

[관광산업에 대한 추천 여행코스(안)]

● 여행코스 1. [1일 관광코스]

기업체(삼성, LG, 농심, 영도벨벳 등) 방문 - 금오산도립공원 - 박대통령생가(새마을운동의 창시자, 박근혜대통령의 부친임을 부각) 보릿고개 체험장 - 낙동강체육공원(뚝방길 마차운행 검토 : 낙동강 체육공원을 경유하는 말마차 운행)

● 여행코스 2. [1박2일 관광코스]

1일차 기업체(관내 대기업) 방문 - 금오산도립공원 - 박대통령생가(새마을운동의 창시자, 박근혜대통령의 부친임을 부각) 보릿고개 체험장 - 낙동강체육공원

※ 숙박은 옥성자연휴양림(평일 빈방 활용)

2일차 구미시 승마장(승마체험장) - 구미보 - 일선리문화재마을 또는 도리사 - 기업체(관내 중소기업) 방문

{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위키백과 등 }